



##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선임 “인쇄 단체 후원 통한 활성화 주력”

대한인쇄연구소는 지난 11월 8일 하반기 이사회를 갖고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권한대행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사장 임기는 등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년이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2년 3월 임기가 만료된 조재환 감사를 연임하고, 최기환 감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등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개선 사항을 결의했다. 또한 2012년 11월에 임기가 만료된 21명의 이사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선임키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소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 기자간담회…연구소 활성화 방안 모색

서병기 신임 이사장은 지난 11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인쇄 단체의 후원을 통한 인쇄연구소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47명으로 조직된 이사진을 30명 정도로 축소하고, 이사의 회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인쇄연구소 운영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아울러 인쇄연구소는 인쇄 및 관련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공동참여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인쇄관련 전문연구법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인쇄문화산업 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각 단체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역설했다. 인쇄연구소 주요사업으로 제시된 10가지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인쇄업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용역사업을 의뢰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재단법인 등기 문제 선결돼야

인쇄연구소는 1998년 설립 당시 문화관광부 소속 재단법인으로 등록됐는데, 현재는 서울시 중구청으로 소속이 이관된 상태다. 재단법인의 존립 요건인 재산은 7억2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4억2천만원선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쇄연구소는 재단법인 존립 요건을 2억 원으로 낮춰 새롭게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와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쇄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등기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